

우리는 동지이자 전우

미 태평양사령부 주최 오찬 오찬사

1981년 2월 4일

「룡」 제독, 그리고 미 태평양사령부 장병 여러분!

본인은 우선 본인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이와 같이 훌륭한 오찬에 초대하여 주신 「룡」 제독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동북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안정유지에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 사령부를 방문하여, 평화수호군으로서의 용자와 「룡」 제독의 훌륭한 지휘력에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곳 태평양사령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한국국민들이 매우 두터운 신뢰와 우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지이며,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합심하고 있는 전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기도가 더욱 끈질기고 더욱 극성스러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공동목표를 향한 의지와 헌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국인과 미국인의 후손, 한국인과 한국인의 후손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 과 미래의 모든 인류들을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룡」 제독과 장병 여러분들의 무운장구, 미태평양사령부의 영원한 발전, 그리고 한·미 양국국민의 돈독한 우의를 위해 모두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감사합니다.